第291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6月23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보고(계속)
   가. 근로복지공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 한국고용정보원
   바.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審査된案件

1. 업무보고(계속) ····· 1
   가. 근로복지공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 한국고용정보원
   바.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근로복지공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 한국고용정보원
바.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상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7개 기관의 기관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8대국회 하반기 첫 임시국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28일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저희 공단이 기관 평가에서는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고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경영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보상 업무와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5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 5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 지원 그리고 영세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증진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객친화적 업무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비전 및 전략 수립, 공공기관 선진화, 그리고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산재의료원과의 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직영 산재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요양, 보상, 재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을 계기로 해서 공단의 기존 업무와 조직체계를 핵심 사업 위주로 개편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근로복지 전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각오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송주 감사입니다.

이우헌 기획이사입니다.

이은애 재정복지이사입니다.

정구헌 산재보험급여이사입니다.

구본건 산재의료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전략체계,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산재보상 업무, 재활사업,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8일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부에 이사장, 감사, 4이사, 2본부, 8실(국), 1위원회, 1연구센터가 있고 소속기관은 지역본부 6개소, 지사가 49개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6개소, 총 3800 병상 병원이 9개소, 연구소가 1개소, 케어센터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정원은 5051명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의 예산은 5조 3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이 4조 2214억, 의료사업회계가 2476억, 고용보험기금이 1947억,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3508억, 임금채권보장기금 2286억, 에너지특별회계가 692억 등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 실적은 산재·고용보험 사업을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는 25만 2000명에게 3조 4631억 원을 지급했고 요양환자는 4만 4000명, 그다음에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57.2%를 달성했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고용보험이 4조 2170억, 산재보험이 4조 8653억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156만 개소, 고용보험이 139만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수급자 누증 등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보험 중복기능 해소와 비효율성 제거,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

대 요구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추진 방향은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적용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한 산재보험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내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 고용정보 관리업무를 추가하겠으며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 방식을 개인별 월보수총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금년 7월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재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재보험 장해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난 5월에 전면 개편된 진폐근로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진폐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를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진폐사망 인정기준,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는 등 진폐요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재보상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요양 단계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해 발생 시점부터 사회복귀까지 요양과 보상, 재활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관련 일선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으며 케이스매니저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료기관 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장해재판정제도 시행 등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재장해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 단계별로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 상태별로 다양한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체기능 강화를 위한 재활스포츠를 지원하고 조기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산재보험 재활전문인증 의료기관을 금년 안에 30개소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점포 임대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입니다.

작년도 주요 실적은 영세·저소득 근로자 5만 9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27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했고 그 지급액은 3080억 원, 또 보증과 담보가 부족한 근로자 보증이 4240억 원, 또 장기 실업자 등 창업점포 임대 지원에 98억 원, 저소득 근로자 장학금 지원에 61억, 또 긴급생활안정지원에 246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근로복지 포털 서비스를 09년 2월에 개시를 해서 연말까지 총 107만 명이 방문을 해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복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공공근로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업자, 임금체불 근로자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더욱 노력을 하고 4인 이하 퇴직연금제도 도입 준비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근로계층 생활안정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안정자금 288억 원을 융자를 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200억 원을 융자를 하겠습니다. 또 신속 정확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임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실전 창업 훈련, 자신감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753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보증과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 직영으로 24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여성고용환경 개선사업 융자를 하겠으며 또 189억 원의 예산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2~5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겠습니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및 퇴직연금 도입을 금년 안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복지포털을 고객 욕구를 대폭 반영해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를 상호 결합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 의료사업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산재환자 총 103만 3000명 진료를 했고 재활치료는 총 9만 3000명, 그리고 산재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특화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도 연구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 대행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한국산재의료원을 금년 4월에 통합함에 따라서 진료기능 확대 등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직영 산재병원의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산재환자 중심의 진료 등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책임경영을 통한 산재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금년 8월에 마련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병원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재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산재 다빈도 상병 중심의 진료역량 강화로 산재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신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대구재활전문병원을 최첨단 시설로 신축해서 국내 재활병원의 허브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의 금년 중요한 현안사항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산재·고용보험의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정보관리를 추가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 총액에서 개인별 보수로 바뀌게 됩니다. 또 보험료 납부 방식도 자진신고 납부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적용과 징수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부터 징수 통합을 시범운영하고 전환 배치인력을 선발해서 핵심 업무 중심의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제 신규 도입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현행 자진신고납부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용과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까지 업무를 재설계하고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또 부과고지 시행과 시험운영을 위한 근로자 고용정보를 사전에 구축하고 직원에 따른 직무교육과 홍보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효율화입니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정원 5600명 중에서 549명을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총 260명이고 상반기에 총 211명 채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봉 비중을 축소하고 실적과 직무연봉 비중을 2%에서 1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부진자에 대해서 재교육과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부진 시에는 단계적으로 직권면직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주요 경영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김원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재섭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유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은 1982년도에 설립된 이후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관리, 외국인고용 지원, 국제협력, 기능 장려 등 국가 인적자원개발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과정 지원과 직업방송 TV 개국 등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6번째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기능강국 코리아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경영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자격관리 전문화 강화, 글로벌사업체계 고도화, 그리고 조직 운영의 효율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정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우리 공단을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에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 글로벌리더 청년 10만 명 양성사업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해외취업 2700명 목표 달성과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랍 에미리트 원전사업 입찰 수주와 관련하여 아랍 에미리트 측에서는 우리 공단과 직업훈련·기능경기·자격검정 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고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기능강국 한국의 가치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중동 산유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승호 감사입니다.

이윤호 기획운영이사입니다.

홍석운 능력개발이사입니다.

김종효 자격관리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경영목표,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외국인고용 지원, 기능 장려, 고용 촉진 등 산업인력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과 정원 현황입니다.

본부는 3이사, 1본부, 13실, 37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자격출제원, 글로벌 HRD 협력원이 있고 소속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공단의 정원은 1042명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평생능력개발·국가자격검정·국제인력교류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출연금과 고용보

험기금출연금으로 총 2050억입니다.

재원별 수입예산과 사업별 지출예산은 아래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평생능력개발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기업 사정에 맞는 진단과 컨설팅으로 자발적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했고 Best HRD 인증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성과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민간훈련기관 지원을 위해서 기업 및 훈련시설에 대한 직업훈련자금을 대부하고 훈련 모니터링을 통한 훈련시장의 내실화 및 HRD 현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직업·고용·능력개발정보 등 다양한 방면의 평생능력개발 촉진을 위해서 1일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한국직업방송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표준적 지침 제시를 통한 체계적·합리적 훈련 실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습득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훈련 기준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 교재, 시청각 매체를 개발·보급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해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검정사업입니다.

국가기술자격 556개 종목에 대해서 약 300만 명의 필기·실기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32개 종목의 출제 기준을 산업현장기술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신설종목 및 출제 기준이 개정된 종목, 적정 문제 수가 부족한 과목의 시험문제를 우선 확보하고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로 문제의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강화를 위해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격 종목을 신설·정비하고 140개 종목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 자격 가치 평가를 위한 효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격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Q-net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하여 불법대여 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30개 국가 전문자격에 대하여 약 47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출제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출제 프로세스 관리 전산화 및 출제위원 인력풀을 정비하였습니다.

출제발간센터를 완공함으로써 출제연금과 문제발간 자체의 인프라 보유와 동일 공간 배치로 발간 능력을 40%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관리사업입니다.

입국 지원을 위해서 상시 알선 가능한 적정 규모의 유효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원 및 사증발급 지원을 하며 외국인력 도입기간을 80일에서 17일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 확대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으로 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고용체류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언어 소통을 위하여 통역 지원 인력풀을 확충하였습니다.

귀국 지원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자에게 교육 및 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 알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진흥사업입니다.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능력 위주의 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기능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을 선정하고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수 기능인을 직업진로지도 강사로 활용하고 우수 기능인 성공사례로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발굴·홍보하였습니다.

국내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기능인의 저변 확대와 국제대회 참가 및 상위 입상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취업 지원 및 국제교류사업입니다.

해외 구인처 개척 및 해외취업 유관기관을 통한 인력풀 구축으로 취업 알선 및 해외취업 연수를 실시하고 중동 산유국 등 신규 교류협력 대상국가 및 개도국 등에 대하여 자격검정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직업훈련 관계자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UAE 원전사업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기능경기, 자격검증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외평가 및 성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품질경영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의 비전은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이고 2010년 경영목표는 직업능력개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등 4대 전략과 HRD 인프라 확충 등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HRD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직업방송 전문채널인 '한국직업방송'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고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직업능력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서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습하는 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HRD인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내실화를 위하여 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 지원 및 모듈식 단기직무능력향상 훈련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기능인 중시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숙련 기능인의 기능 향상과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인작품 박람회 개최 지원과 명장, 기능한국인 등을 선정·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시도 기능위원회별로 각 지역의 우량 기업체를 발굴해서 취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런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으로 기능강국 위상제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능력의 달에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 집중 개최로 HRD 지식정보 제공, 평생능력개발 인식 확산 등 직업능력의 달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격관리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자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녹색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녹색 자격종목 신설을 추진하고 자격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법 개발과 자격제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자격제도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공단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활용을 통한 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고 금속·기계분야 등 151개 종목에 대한 자격 효용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자격검정 시행을 위해서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에 대하여 필기·실기시험의 장소 및 시설·장비를 사전에 공고하여서 시험장 및 시험일자를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Clean 자격증 운영사업을 강화하고 자격취득자 직무능력향상 온라인 교육훈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문제은행 및 출제기준을 정비해서 자격의 종목 간, 등급 간 합격률 편차를 줄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웹기반 출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제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출제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모의시험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사업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외국인 고용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외국인근로자 인력 풀(POOL)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도입하여 산업현장 및 귀환에 도움이 되는 기능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대학과 지자체 연계한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해

외취업 연수과정 조기 운영으로 성과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취약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해외취업목표 금년도 2700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과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실시입니다.

먼저 실질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국가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선진국의 우수한 HRD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HRD시스템 및 기능 강국으로서의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ILO, APEC, ASEM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공단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먼저 경영효율화과제 이행을 이해 성과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별·본부 실국별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내실화하여 보직자에 대해서 개인성과 평가 등 다각적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는 하향보직 및 무보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新) 인재상 정립과 우수인재 포상을 통해 핵심인재 발굴 및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 유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유재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홍희덕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고를 오전시간 다 갈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축약적으로 보고시간을 줄였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 있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8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저희 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홍보, 기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재해예방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단 창립 당시에 2.66%에 달하던 산업재해율이 작년에는 0.7%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사업장의 소규모화,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성 심화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99년 이후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되어 있어서 이의 타파를 위한 변곡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재해예방효과 검증에 기반한 사업의 재설계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의 과학화, 자원과 인력의 집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러나 공단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과 폭넓은 파트너십 협약체결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4년도 산업재해율 0.5%대 진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감사입니다.

김동섭 기획이사입니다.

홍용수 기술이사입니다.

최대열 교육홍보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예방활동의 전반적인 체계, 그리고 금년도 계획과 실적 등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성격은 준정부기관이고 연혁은 87년도에 설립되었고 2008년 1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보건'자를 넣어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능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원이 5명이고 본부에 9개 실을 가지고 있고 연구원, 교육원 그리고 일선기관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본부에 179명, 일선에 1057명, 해서 1236명이고 기술사나 기사, 박사,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출연금이 98%입니다. 291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출은 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안전기술지원사업, 보건기술지원사업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한 것만 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9만 700명 정도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해율은 0.7%고 사망자는 2100명 수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산업별, 규모별, 형태별, 질병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의 재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자의 절대적 숫자는 80%가량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조금 줄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활동 체계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저희 공단 직원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스스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스스로 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로 국고에서 부담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의 목표는 0.7%대의 재해율을 깨서 0.6%대에 진입하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먼저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성 재해예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왼쪽의 것은 계획이고 오른쪽은 5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에 서비스업의 재해가 늘고 있어서 서비스업종 중에서 재해자수가 많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업 안전 더하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1000대 건설업체나 40개 공공발주기관별로 재해율을 공표하고 또 상위 50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확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사고가 많아서 이러한 기계·기구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안전인증과 또 사용단계에서의 안전검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주도형 규제방식에서 사업장 주도형 자율안전관리 체계로의 정부정책 전환에 발맞추어서 그 시범사업을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입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업환경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또 석면노출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원하거나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령화, 직무 스트레스,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업무상 질병 유소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장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KOSHA-18001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안전을 경영의 제1 가치로 삼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러한 시스템의 확보 여부를 인증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케 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15쪽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설·이전, 설비 변경 시 사전에 안전성을 심사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또 건설업의 경우에 큰 건설공사 그다음에 교량·터널·굴착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심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이 'KOSHA CODE' 또는 'KOSHA GUIDE'라는 이름으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개발해서 사업장에 보급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안전보건 미디어의 개발·보급과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R&D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연구와 안전공학 연구, 직업환경이나 근로자건강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 통계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병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직업병 역학조사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사업입니다.

국제협력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전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교류입니다. ILO 등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이나 독일, 핀란드 등과도 협정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도상국에 저희 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또는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에 서울에서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렸고 그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적 선언인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선언서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포럼 그다음에 지지서명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노민기 이사장님, 쫓기듯이 잘 하셨는데, 핵심 있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양경자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1990년 1월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업주 역시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이 저조한 기업 46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고용을 촉구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1개소 설립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말 국제 금융위기로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초기 0.43%에 불과하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87%에 이르고 있

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의 지도에 힘입어 2009년 10월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정부 수준인 3%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도 2%에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7%까지 높이도록 하였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2배수 고용제가 도입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한 해에도 한국병원, 고신대학교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착수하였고 정부부문의 근로자 영역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700개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끊임없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에 가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숙하고 서툴지만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복지 활동을 해 왔듯이, 그리고 1989년 2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처럼 240만 장애인의 당당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의례적인 편견을 없애는 등 초심의 마음으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복지 파수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우리 공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간 기획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손영호 고용촉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많은 제한이 있어서 좀 빨리……

○위원장 김성순 예,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인사말씀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간단히 하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장애인고용 현황 및 환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단의 주요기능은,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2쪽, 연혁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0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지사와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부담금 징수와 장려금 업무를 노동부에서 수탁받았고 2004년에는 의무고용 대상 범위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공공기관은 2010년에 의무고용률이 3%로 각각 상향되었고 민간부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3%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금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그림을 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임직원은 119명(19.3%), 여성 임직원은 212명(34.4%)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0년 사업별 예산운용 총 규모는 2009년보다 21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450억 7100만 원입니다. 공단 출연 사업비 825억 7500만 원과 노동부 위탁 사업비 1624억 9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고용 현황 및 환경입니다.

장애인고용 현황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말 현재 1.87%로 2008년의 1.73%보다 0.14%p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009년 말 현재 1.97%로 2008년의 1.76%보다 0.21%p 상승하였으나 의무고용률 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기관의 2009년 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2.11%로 2008년의 2.05%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은 2009년 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1.84%로 2008년의 1.70%보다 0.14%p 상승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구의 증가사항으로 2009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242만 9000명으로 2000년의 95만 8000명보다 14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20.4%p, 전체 인구의 고용률보다 21.8%p가 각각 낮으며 실업률은 8.3%로 5.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의식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적합한 직무영역을 확대하고 특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단 경영 전략 체계는 표와 같이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기업의 고용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첫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교원준비반 운영, 시험편의 적극 지원과 개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장애인고용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고용률 저조기업 및 미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1401억 원을 지급하고, 11쪽에서 이어집니다마는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한 고용관리비용 19억 원,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 비용 무상지원 13억 원 등 사업주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기업체에 대하여 고용관리 진단과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인 One-Car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장애 친화적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정착을 위해 15개소에 63억 원을 지원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 CEO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자회사 설립에 12개사,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보조공학기기 지원사항입니다.

수요자 관점의 장애 및 직무 특성에 맞는 상용보조공학기기를 3500명에게, 상담·평가 등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보조공학기기는 2000명에게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100명에게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적합 장애인력 풀 확대입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표에 있는 장애인공단, 공공, 민간 등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력 양성 강화를 위하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양성훈련 인원을 2010년에는 1595명으로 확대하고 맞춤훈련 비율을 전체 훈련인원의 72%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표와 같이 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등 5개 능력개발원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화 훈련을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14쪽에서 이어집니다.

공공훈련기관을 통해 경증장애인 등 400명에게 다양한 사회통합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여성 및 고령장애인 등 640명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443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직 예방 및 신체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이버 훈련을 2010년에는 2100명으로 확대하며 신규 교과 콘텐츠 2종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담·평가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2010년에는 1만 2500명을 취업목표로 적극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직업능력평가 전문성 강화입니다.

직업능력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리평가, 작업평가, 현장평가 등 전문평가서비스를 5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 설계, 구직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지원에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2010년에는 1150명으로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150명을 위탁하며 직무지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양성교육 과정을 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고학력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험 고용을 100명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식개선 활동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활동 강화를 위해 우리 공단이 개발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4000명 실시하고 9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및 트루 컴퍼니(True Company)상 선정, 기능경기대회 및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과 일터' 발행 및 TV, 라디오 방송 공익캠페인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접점기관 관계 강화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장애인 유관기관과 구인·구직 및 취업 등 정보 공유와 장애인 개별 사례 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취업알선 공동수행 기관을 2010년에는 9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셋째, 기초통계 및 고용개발 강화입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장애인 기초통계 조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및 사업효과 관련 20개 연구과제를 선정·수행하며 국제교류 활동 강화로 해외전문가 초정연수, EDI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겠습니다.

18쪽,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인력운영의 추진을 위해 마련한 2009년 경영효율화 계획에 의거 정원의 10%를 감축 조정하였고 정원 초과 인원 24명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력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의 4% 규모 내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인사관리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1·2급 간부 직원에 대하여 1~6등급까지 직무등급제를 시행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하여 장려금 업무의 전자신고 처리율을 2010년 35%로 확대하는 등 고객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항입니다.

2011년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시초로 열립니다.

이 대회는 1981년부터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사회경제 활동의 참가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며 직업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4회 대회부터 제7회 대회까지 4연패를 달성하였으며 2011년 제8회 서울대회에서도 종합 우승하여 5연패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연합 회원국은 40개국, 5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1년 9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 6일간이며 대회 장소로는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등이 사용됩니다. 개최 직종은 CNC선반 등 40개 직종이고 이번 대회는 약 50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회 목적 및 기본 방침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수 기능인이 참여하는 기능경기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그간 아시아 중심의 대회에서 전 세계 장애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확대하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및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대회 프로그램 구성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원활한 대회 진행으로 동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양경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정보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2006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간 신설 조직으로서 내적·외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워크넷 등 주요 전산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종합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워크넷 기능 고도화, 일자리망 연계·통합망 구축, 대졸 취업생 전용 사이트 잡영(Job Young) 구축, 잡로봇(Job Robot) 기법 도입, 소프트매칭(Soft Matching)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으로서 중장기 인력수급을 예측해서 앞으로 인력수급이 잘 되도록 정책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고용 관련 DB를 분석·제공해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지원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를 모니터링·평가하고 민간 부문 고용지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사업을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고용 부문에서 일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뒤에 두 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본부장 조인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는 고용정보원은 말씀드린 바대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고용 관련 전산망 개발과 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독립되어 현재 국가 고용정보 인프라 선도기관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고용 전산망 개발 및 운영·관리,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직업 및 진로지도,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현황을 봐 주시면 조직은 2본부, 1실, 5센터, 10팀으로서 현재 인력은 200명입니다.

예산 부분은 465억 원인데요, 이 중에 일반회계 100억 원은 인건비이고 고용보험기금이 업무 관련인데 360억 중에서 전산망이 200억을 넘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경영목표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국가 고용정보 인프라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전산망 현황을 보면 주요 전산

망은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주된 것이고요. 밑에 실적을 보면 워크넷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지난 2008년도에는 24만 명에서 2010년 5월 현재 3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세대 종합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위해서 대졸 전용 사이트 잡영에 대한 개선, 잡로봇 기법 도입, 일자리와 훈련의 연계 서비스, 취업정보 알선, 소프트매칭 기법 고도화 등을 하겠고요.

다음으로 DDos 때문에 정보 보안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산하 전체에서 저희들이 책임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보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매년 하는 것은 산업별·직업별 수급 전망을 매년 실시합니다.

주요 부문은 과학기술, 산업, 문화, 환경, 금융, 보건 부문이고요, 이 부문들에 대한 미스매칭 해소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일자리 수급 전망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로 가면 고용창출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고용 관련 저희들이 갖고 있는 DB 분석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고용서비스 평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추진계획에서 6개 과제가 6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노동시장을 통해서 생애주기적 고용서비스정책을 개발하고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어젠다를 개발해서 고용노동부 출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서 민간 서비스 부문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진로와 직업 부분에서 현황은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진로·직업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보급서와 진로지도를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가면 직업정보 및 직업연구에서는 현황의 실적에서 직업정보서 개발·보급이 2010년 현재 10종, 그리고 직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7400명에 대한 직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좀 더 한국의 새로운 신생이나 이색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녹색직업,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일자리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고용동향 조사에서는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대책 모니터링에서는……

○신영수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맞아요.

○위원장 김성순 페이지 수가 틀리네.

○신영수 위원 보고서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가 틀려요.

○위원장 김성순 지금 12페이지인데 14페이지라고 그러고……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14페이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대책 모니터링 하세요.

○신영수 위원 보고서를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위원장 김성순 잘하려고 아마 쓴 모양인데…… 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죄송합니다.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고용 대책에 대한 관련 사업을 점검해서 대책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래요. 듣기는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좀 자세히 들어야 하는 건데 시간 때문에……

다음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허병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한국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허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는 넘쳐 나고 있는데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원하는 기술인재를 구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희 폴리텍대학은 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개발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실습 중심의 맞춤식 기술교육으로 취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기술엘리트를 길러내는 특수 국책대학입니다.

3D 영화와 스마트폰에서 보듯 기술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유비쿼터스시대에는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리네 보자기와 같은 융합형 기술엘리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폴리텍대학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융합인재 양성 과정인 저희 대학 고유의 크로스오버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년 단기 테크니션 과정의 경우에 금년 신입생의 45.3%가 전문대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입니다. 인문학 등 다른 전공을 갖춘 이들 고학력자들을 폴리텍대학 고유의 학사 모델인 FL시스템과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기술엘리트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실업으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에게는 원하는 일자리를, 그리고 재직 근로자들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주에서 저희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를 개원하고 녹색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저희 자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재직 근로자에게 첨단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공훈련기관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기퇴직자와 베이비 부머 세대 등 고령자들의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단순 기술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신개념의 기술 훈련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객 없이 저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말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땀으로 기술로 말하겠습니다. 취업률과 연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1700여 폴리텍대학 교직원은 국가가 저희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100%입학, 100% 양성, 100% 취업의 핵심가치 300 달성에 진력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융합기술엘리트를 길러내는 직업 기술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운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6쪽까지 연혁,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 중 밑의 표, 굵은 선으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저희는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1만 5340명, 기능사 1년 과정 6680명, 재직자 향상훈련 12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만 484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교육훈련 과정 개요입니다.

양성훈련은 2년제 산업학사 과정입니다.

금년 2월 졸업생 중에 군입영자와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 대상자 취업률은 89.3%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이 2010만 원임에 비추어서 저희 대학 금년 졸업생 중에서 3000 이상 연봉 374명 포함해서 2200 이상 연봉을 받는 졸업생이 1460명 취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1년 또는 6개월 과정의 기능사 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능사 과정에는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자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금년에 45.4%입니다.

취업률은 84.4%, 그리고 고임금 취업현황은 3000만 원 이상이 43명을 포함해서 전체 762명이 취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향상훈련은 재직자 향상훈련, 이동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취약계층훈련, 생활기술훈련들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09년도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저희 대학이 94.9점으로 기타 공공기관 41개 중 9개 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핵심가치 300 달성과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 대학의 고유 학사 시스템인 학생들이 직접 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는 게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FL System 강화를 위해서 현장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실습,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그 표에 나타난 대로 11개 업체를 전담 관리해서 기업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현재 저희 졸업생의 68.7%가 전부 이 기업전담제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금년에는 72%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산업현장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 폴리텍대학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초에 대학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폴리텍 Ⅰ대학 정수캠퍼스를 시범대학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Ⅱ대학 인천캠퍼스·Ⅳ대학 대전캠퍼스·Ⅴ대학 광주캠퍼스를 시범대학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칭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서 맞춤훈련을 강화하고 두 번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저희 기능사 과정에 절반 가까이 오는 관계로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을 살려서 융합형 기술인재로 길러 낼 수 있는 Crossover 기술인력 양성에 A타입·B타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대학 6개 캠퍼스에 9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0개 직종을 추가하도록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은 금년에도 12만 명을 목표로 특히 자체 능력으로는 향상훈련을 시킬 수 없는 적어도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직업훈련 취약기업 재직자훈련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 시니어 계층을 위한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구분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녹색 및 미래신성장동력 학과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서 매년 13개 학과씩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4년제 대학하고 저희가 당당히 경쟁해서 맨 밑에 표에 기록해 드린 대로 Ⅳ대학 충주캠퍼스와 Ⅶ대학 창원캠퍼스가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영선진화 측면에서는 맨 밑에 부분 지자체 협약기관, 그동안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학생 취업이 어렵고 이랬던 캠퍼스 3개를 자진 폐지하고 내년 2월에 고창캠퍼스를 폐지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허병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운기 총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몽골과기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무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현찬 기획처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처장 조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대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8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이 뜻 깊은 자리에 기관장인 총장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저희 대학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지 못 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를 포함한 HRD 전문가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이론과 현장 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실천공학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부 3620명, 대학원 48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행정연수원·능력개발교육원·산학협력단 등 부속기관 운영을 통해서 노동부의 공무원 직무교육 및 공공 부문의 노동교육, 재직자 평생능력개발과 산학협력 기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실사구시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KUT 기술교육모델을 개발하여 실험·

실습교육 강화, 졸업 연구작품 발표회,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일반 공과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내부 고객인 학생들은 물론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9월 발표된 중앙일보 주관 대학평가 결과 교육 중심 대학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뉴 IT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기반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핵심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인구 급감에 따라 예상되는 대학 간의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천공학과 평생능력개발의 세계 최일류 대학이라는 목표하에 KUT Vision 2015를 작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KUT 인재양성, KUT 기술교육모델 내실화, KUT 교육문화 창조라는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대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향후 세계 최고의 특성화 대학 교육모델·실천공학 기술교육과 평생인적자원개발의 요람 등 제2의 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3월 국제교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술리더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이슈인 녹색성장산업 활성화에 부응하고 이공계 대학의 하이브리드 실천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 대학생 자작 하이브리드 자동차대회 추진 등 다양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과 환노위 위원님!

저희 대학 전체 구성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HRD 특성화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또 평가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최일류 대학으로서 교육 및 연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18대 하반기 국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들은 대학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경 행정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업무추진현황 이것하고 인사말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됐어요. 이걸로 갈음하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위원장 김성순 뭐 특별히 여기 없는 것 보고할 것 있어요? 특별히 강조할 것만 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현안사항 있으면 현안사항만 하시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잠깐 저희 대학의 현재의 소개를 잠깐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성순 그러세요.

○강성천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천공학자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천공학자라는 것은 고급기술 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현장 실기하고 현장에서 학습조직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또 인력개발담당자 또 실천공학기술자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간 취업률이 총계적으로는 98%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는 91.7%였습니다. 현재 6월까지는 90.7%인데 학생들의 전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 16.4%가 평균 입학성적이었습니다, 수능성적으로. 그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우리나라 이공계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현찬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보고드린 7개 기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같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 지역 손범규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손범규 위원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장애인 관련된 법률을 대표발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손범규 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89년 2월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안설명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노동위원회 소관……

○손범규 위원 그 법 이름이 뭐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손범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여기 업무보고, 현황보고의 11쪽에 보면요 아까 보고하시던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한다'라는 그것을 놓고 거기에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정착을 지원한다' 이것과 관계해서 '판로 개척 지원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례 제정(지원)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손범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같이 해 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조례 제정을 지원·추진할 것인지 대략적인 방안,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방안이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말씀드리기 전에 손범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6월 7일에 취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주말을 빼면 10여 일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계되는 국장님께 질문을 좀……

○손범규 위원 관계된 국장 누굽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규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관계된 국장 누굽니까? 이 조례 제정 추진 담당 국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예, 안녕하십니까?

○손범규 위원 어떤 식으로 조례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관한 현황은 노동부장관 협조를 얻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한 것 외에는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그것 외에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 사업주들, 아니면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생산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라든가 가점부여라든가 아니면 공공구매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구두상으로 협조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범규 위원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에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각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와 공동으로.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범규 위원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 제정' 괄호 열고 '지원' 괄호 닫고 '추진'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합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을 하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지자체 도지사라든

가 아니면 시장님을 면담했고요. 그 과정에서 표준사업장의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기초자료들, 그런 백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범규 위원 알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예.

○손범규 위원 이사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손범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조례 제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는데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또 지자체장의 성향이라든가 현지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직 의원이시고 하니까 정치력이 있으시다고 보고 우선 노동부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표준안, 조례 제정에 필요한 표준안 있지요? 이걸 지자체마다 다 만들라고 하면 이건 세월이 너무 걸릴 겁니다.

그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표준안을 가지고 일단 노동부를 통해서 전국 지방정부에 하달을 하고, 자치단체장한테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또 각 지방의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지역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가장 취업 제고를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효과적일 수 있다……

○손범규 위원 이걸 적절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좋은 지적과 충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여기 업무현황의 기구 및 정원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지요, 법에 따라서? 재심사위원회는 노동부에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건 노동부에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럼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여기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90명입니다.

○손범규 위원 90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그러면 90명이 건마다 심사를 다 참여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지 않고요.

○손범규 위원 영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그 전문 분야로 몇 개가 나눠져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자세하게 한, 예컨대 병상……

○손범규 위원 90명이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요? 그것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게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손범규 위원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야가 공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의사를 선택을 합니다, 90명 풀 중에서. 그리고 관련된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사 또는 학식 있는 전문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한 건을 심사할 때 몇 명이 심사를 합니까? 90명이 다 달려드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일곱 분이 선임이 됩니다, 그 상병에 대해서.

○손범규 위원 7명 중에 변호사자격, 법조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갑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한 명 들어가요, 두 명 들어가요, 세 명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통상 1~2명 들어갑니다.

○손범규 위원 7명 중에 1~2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그리고 심사직이라는 게 있지요? 심사직이 183명이 되어 있거든요. 본부에 11, 소속기관 172, 심사직이라는 분들은 뭐를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이분들은 이제 진료비가 병원마다 청구가 되면 그 진료비를 심사하는 의료직을 말합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직무를 도와주기 위한 상임직원은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걸 심사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건 별도입니다.

○손범규 위원 그럼 무슨 직이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건 산재심사실이라고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산재심사위원회 옆에 산재심사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손범규 위원 그러면 산재심사실 직원은 그 정원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전산직입니까, 심사직입니까, 연구직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이건 주로 일반직입니다.

○손범규 위원 일반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일반직 2923명이 있는데 그 산재심사실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일반직이 2923명인데 심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심사실 직원은 지금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손범규 위원 31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그러면 31명의 직원이 90명의 심사위원을 보좌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심사를 보좌하는 게 산재심사실입니다.

○손범규 위원 그 심사실은 계속 상근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상근하는 게 아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지요. 90명 풀 중에서 그 사건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을.

○손범규 위원 그러면 산재심사실에는 법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심사실에는 없습니다.

○손범규 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직 출신이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손범규 위원 이 산재심사 과정에서 노동자,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사고와 자기의 직무 간에 연관성, 법률용어로 인과관계,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지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건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손범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입증책임을 모두 다 근로자에게 지우고 있는 현 제도가 법에 기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100% 다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지 않고 입증책임을 분담시키거나 완화시켜도 현재 법체계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건 처음 듣는데요?

○손범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요, 지금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입증책임이 지금 현재 근로자에게 100% 있어서 근로자들이 매우 불리한데 입증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현행 법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이사장이 제도 운영하기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입증책임을 100%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 측과 분담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완화될 수도 있고, 지금 법원에서는 그렇게 완화를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 편에 선 산재보상보험을 운영할 것인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인가, 입증책임의 분담이 무엇인가, 입증책임의 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연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단 입장은 대법 판례 취지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대법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결정한 재해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한 근로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나 해서 법조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물어본 겁니다.

입증책임의 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담. 전환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입증책임의 분담, 입증책임의 완화, 여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그렇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범규 위원님 지적하신 표준조례안, 그것 참 좋은 지적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위원장 김성순 다음에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장애인고용공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자랑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고용은 아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장애인 후보 공천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2.74%였는데 총 47명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26조의2에 따라서 장애인 후보를 공천하면 추천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무려 2억 2667만 원을 받아서 장애인 후보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 이를 위해서 당 안에서도 공천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서 장애인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순 위원장, 신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장애인고용공단의 양경자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앞서서 12대·13대 국회의원이시고 저보다 훨씬 앞서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기가 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사장님의 임명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너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51개 장애인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연일 농성을 하고 또 이사장님 사퇴를 촉구하고 모든 공단의 임명직, 위촉직 등에서 일괄사퇴를 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도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계에서 가고 싶어하는 가장 꿈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면 장애인 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훌륭하게 활동을 하셨지만 한나라당의 상임위원이시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해서도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면 '고소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동문이시고…… 이래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하는 그러한 비난을 면키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애계의 가장 상징적인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면 꿈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낙하산식의 코드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하는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서 우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따르고 또 그래서 이제는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다시 더 강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좀 책임을 느끼시고 정상적으로 빨리 이 업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저 개인적인 임명에 있어 장애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점, 정말 그분들에게나 지금 지적해 주시는 이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노동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조금 주신다면 약간의 제 장애인과의 인간관계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소외감과 실망 이런 등등을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어서…… 한 자리를, 아쉬운 한 자리를 제가 찾아왔다는 그런 불만이 계신데 그 자리같은 자리를 좀 더 많이, 두 배, 세 배, 네 배 가능하면 열심히 뛰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제가 임기 내에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과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그런데 그 자리 같은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는 정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장애인고용공단은 정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꿈, 이상을 실천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또 취임식도 그냥 축복받으면서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신다든지 이런 거가 되어서 일이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일에 못 들어가고 공전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노동부장관 안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단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고용관리진단사업이라든지 창업컨설팅 사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자체 감사가 문제가 있어서 노동부의 감사를 아주 세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상화되고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빨리 장애인고용공단이 좋은 이사장님 오셔서 축복받는 속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야지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모든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 위원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적으로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단에 들어가는데 공단의 지금 인사도 여전히…… 이사장님 제가 잘 알고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획이사님도 기획 이 일을 잘하실 수 있을까 또 산재의료이사님도 지금 계명문화대 관광레저학부 겸임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 전공하고 산재의료이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하는 것도 저는 좀 여전히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냥 지적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공장 근로자 산재승인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 우리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지요. 여기에서 직업성 암 등 피해제보 현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불승인하고 관련 입증 책임을 전부 다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이 공장 백혈병 환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또 심사청구 중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합쳐서 모두 55명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이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승인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게 보시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정의 차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바로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산재승인을 못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산재심사 관련 법령 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 또 현재 계류 중인, 불승인되어서 소송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거를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서면 및 또 찾아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이것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문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재해가 가장 높다,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또 여전히 더 심각한 것은 재해감소율도 다른 나라들은 5% 이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정도로 꼴찌 수준에 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세계적인 10위권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 재해감소율이 여전히 가장 낮게 감소되고 있고 산재사망률이 높다, 이것은 그야말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고 인권의 질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수 이미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미경 위원 벌써 15분 지났나요?

○위원장대리 신영수 아니, 10분입니다.

○이미경 위원 아까 15분이라고……

○위원장대리 신영수 10분, 5분…… 그러니까 본질문 10분 그다음에 보충질문 5분……

○이미경 위원 보충을 지금 더 하는……

○위원장대리 신영수 아닙니다. 10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번 돈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에는…… 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수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범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장애인공단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라는 것이, 특히 신체적 장애는 우리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명의 발달,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선천적 장애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후천적 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이범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누구도 항상 신체적 장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도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절대 열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더한 정신적 장애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폐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적 장애지 신체적 장애는, 그것은 사실 아무런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정부부문에서는 2004년도, 5년도보다 훨씬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고용률이. 알고 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정부부문은 계속 하향……

○이범관 위원 떨어져 가고 있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니지요. 상향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범관 위원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지금……

○이범관 위원 연도별 고용률이 4페이지에 보면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 그래요?

○이범관 위원 공공기관이나……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통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좀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제가 국장한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냥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정부부문……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률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이범관 위원 아니, 이유는 나중에 물어보고…… 떨어졌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예.

○이범관 위원 우리 공단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죄송합니다. 6월 7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안 받으셨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업무보고 대강 정신없이 좀 받았습니다마는……

○이범관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나오지 마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죄송합니다.

○이범관 위원 20일 가까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 통계 나온 것도 모르고. 그러면 국회에 나오시면서 업무현황보고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죄송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자꾸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취임하시고 장애인단체 관련 회장들이나 관련자들은 좀 만나 보신 일이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만났습니다.

○이범관 위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단 아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장애인단체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확인 안 했지만 어저께……

○이범관 위원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실무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사장님 빼놓고 실무자하고 문답을 해야겠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촉진이사 손영호 지금 장애인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범관 위원 아니, 몇 개가 있느냐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촉진이사 손영호 등록된 장애인단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해 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촉진이사 손영호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범관 위원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촉진이사 손영호 중앙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100여 개 단체가 된다고……

○이범관 위원 100여 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촉진이사 손영호 예.

○이범관 위원 그중에서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이사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그분들이 기능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는 22일, 어저께 처음 가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 다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일어서 보세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고용률이 정부부문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좀 상승을 하더라도 법적인 고용률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예, 저희가 매년 고용현황을 집계하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정부부문의 고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정부부문의 고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2005년도까지는 정부부문의 모든 부문에 고용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만 고용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의무가 전반적으로 없었다가 있어지니까 떨어졌다 이 말이구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예, 맞습니다.

○이범관 위원 의무고용을 안 하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부담금 정부부문에서 징수한 일이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정부는 부담금 징수가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정부부문은 고용률을 이행 안 해도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제재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뭐 기관장을 경고하거나 무슨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경영평가를 통해서 평가 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부처별로 자세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왜 그런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지 의견을 정리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또 일어나세요, 잠깐만.

○위원장대리 신영수 이범관 위원님, 나와서 좀 발언하게 하시지요. 그 시간은 제해 주시고. 잘 안 들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이범관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되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장애인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증가 이유가 뭔지 분석된 게 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장애의 범주가 매년 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 부분도 증가 추세하고 어느 부분에서 증가를 하는 것인지, 증가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개선책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지원국장 조종란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범관 위원 산재보험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난 4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서 지적된 게 많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범관 위원 2009년도에 3조 4000억 정도의 산재보험이 나갔는데 부당 지출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시장에서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졌다, 다친 사람이, 이런 거라든가 형의 집에 핸드폰을 찾으러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온 사람이 사업장 냉동탑차에 적재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박스를 내리다가 다쳤다 이렇게 청구한 거라든가 자기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술 먹고 계단 내려오다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공사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는 파이프 운반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비공장에서 작업한 일이 없는 데도 정비공장에서 화물트럭 적재함 도색작업 하다가 사고를 입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심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저희들이 조사는 철저히 합니다마는 철저하게 은폐를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이범관 위원 현장 확인 안 해 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다 하지요,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완벽하게……

○이범관 위원 이런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 환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적발이 되면 환수는 배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범관 위원 담당 직원에 대해서 무슨 징계 조치는 안 합니까? 직원의 잘못은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지 실사조사를 하는데도 그런 걸 못 발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우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보험조사부를 임시 기구로 하고 금년 4월에는 아예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말씀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이범관 위원 고용보험료 체납자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체납자가 꽤 많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많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동산이 있음이 밝혀졌다거나 골프장회원권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게 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공단의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지금 밝혀졌는데도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밝혀지면 저희들이 징수……

○이범관 위원 여기 지금 41건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수 마무리하시지요.

○이범관 위원 41건에 58억 원이 체납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골프회원권이 있어서 확인된 것이 36억 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을 징수를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징수는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41건 중에서 완납은 30개소를 완납을 시켰고요, 압류는 11개가 지금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준 자료인데, 그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범관 위원 다 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우리가 골프회원권이 있는지를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협조 안 되는 것은…… 밝혀진 것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완납 다 했습니다. 조치하고 다……

○이범관 위원 다 된 것 맞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30개소는 완납이 끝났고요, 11개소는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일어나셨던 분, 다 된 것 맞아요?

○근로복지공단재정복지이사 이은애 완납한 게 있고 현재 압류 중인 게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안 됐는데 다 됐다고 그러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아니, 30개소가……

○이범관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거기서 낸 자료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데.

○위원장대리 신영수 마이크 쓰세요.

○근로복지공단재정복지이사 이은애 현재 부동산 28개소 중에 8개가 완납이 됐고요, 압류가 20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은 41개소 중에 완납이 30개소고 압류가 11개소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요? 잘 되었으면 됐습니다.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갖다 줘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신영수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범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영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폴리텍대학 허병기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예.

○이찬열 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 보니까 인원 감축 10%를 하신다 그랬어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예.

○이찬열 위원 거기가 교육기관인데, 물론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데 교육기관까지 같

이 10% 감축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교육기관의 인원이 10%가 감축이 되면 그만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노동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폴리텍대학 인원 감축방향은 저는 목표가 잘못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정원을 늘리면 늘렸지 그것을 줄이는 것은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이 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산재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관리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고하신 데 보면 피보험자관리제도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어제까지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같은 말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게 이름이 고용, 여기 보니까 고용정보관리제가 그것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떻게 이름, 사업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재정복지이사 이은애 같은 내용인데요,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냥 부르기 좋게 피보험자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마이크에서 자세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예, 나오셔서 누구시라고 얘기하시고……

○근로복지공단재정복지이사 이은애 예, 재정복지이사 이은애입니다.

법상 용어가 근로자고용관계관리고요, 피보험자관리라고 저희가 그냥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름, 명칭 자체가 이렇게 왔다갔다 되고 그것 하나 일정하게 통일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 좀 걱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재정복지이사 이은애 예, 저희가 통일해서 법상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 정도는 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용어 자체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여기가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데 용어 자체도 일원화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럼 제가 고용정보관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통일을 해야죠, 지금 말을 해 놓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공식적으로는 그 용어가 법률상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이찬열 위원 고용정보관리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용정보관리제로 통일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아까 보니까 56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복지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정부 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증원 방안에 대해서, 560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노동부장관한테 물어 보니까, 질문할 때 보니까 그쪽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하고는 협의 안 하고 기획재정부하고만 얘기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아닙니다. 노동부하고 삼자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어제 노동부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서로, 노동부가 모르고 기획재정

부만 알면 일이 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우선적으로 노동부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이찬열 위원 이사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뭡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560명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증원을 억제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징수 통합 때문에 382명이 또 건보공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조합을 맞출지 이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증은 되도록 억제하고 건보공단으로 넘어가는 인력에서 또 일부를 상쇄를 시키고 이런 조합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그 해당 인원 382명은 전부 인수를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근로복지공단은 넘겨 줄 건 주고 새로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충원시킬 건 못 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것은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그게 어떻게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560명이 순증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컨대 382명이 저쪽으로 이관되면 560명은 순증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다만 아까 같은……

○이찬열 위원 그런데 내용이 달라는 데는 다 주고 560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확보돼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저희……

○이찬열 위원 아니,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일단은 560명 중에서 저희들이 최종 대안은 자체 절감을 좀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자체 절감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증원이 안 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현재 560명은 반드시 순증이 돼야 되고 다만 건보공단으로 382명은 넘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순증이 어려우니까 그런 아까 같은 조합, 그러니까 덜 넘겨주고 또 증원되는 인력도 상당히 최소화하면서 이런 조합 관계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덜 넘겨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또 안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글쎄, 그런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조금 힘이 듭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560명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면, 노동부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만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노동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이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찬열 위원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 6개월뿐이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은 아시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게 사업장에서 다 관리하던 그런 업무인데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다 이관시키면서 지금 개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이찬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인원 보충이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인원 보충이 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인원 보충을 하도

록, 증원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우선 다하는 것이 이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징수 부담에 따라서 자체 절감인력을,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유해서 적은 인원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데 그건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증 560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건 여기서니까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체 인원으로 만약에 10명이든 20명이든 조정을 해서 쓴다면 지금 그 인원은 과잉 인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물론 정책이니까 노동부나 아주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적기에 빨리 시행하라고.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든가, 아예 이 법을 폐기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뭐 걱정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런데 일단 작년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찬열 위원 그러면 법개정을 국회에다 요청을 하세요, 노동부에 저기 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런데 이 제도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 장점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비가 너무 안 되고 현재 노동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이사장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감소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정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서비스산업 분야는 이 사업에 넣지 않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대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솔직히 산업안전보건은 제조업, 건설업에 치중해 왔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불과 1, 2년 정도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위험한 설비에 의한 재해가 나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클린사업장의 그 컨셉을 일부라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지금 보니까 재해율이 많이 감소하고 또 사실은 재해가 저소득 일용직 같은 데서 많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재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좀 저희 방에 보내 주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꼭 들어가야 될 분야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다음은 장애인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요새?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회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회복지 쪽에 좋은 일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좋은 일을 하시려고 이곳에 오

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번 사태가 장애인들이 왜…… 저는 이미경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무조건 그 자리를, 공단 이사장 자리를 무조건 장애인이어야만 한다라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세상하고 등지고 살아야지요. 장애인들만 따로 살아야지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장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을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 이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장님께 그런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일의 파악이 돼야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사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어제도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잠깐 뵈었습니다마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길 수 없지만 뜻은 그런 거였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토록 장애인의 고급 인력이나 장애인 자리에 관심 없이 했었는데 최근 3대에 이어서 장애인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양경자가 왔느냐,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먼저 제가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든 크든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장애인이 보기에는 그 역할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 어쩌면 공직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할 수 있으면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다니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흔한 얘기로 저희들끼리 칭찬하는 얘기겠지만 장애인보다 장애인 문제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정신병자처럼 뛰어 다니는 양경자라는 말도 한때는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89년의 그 상황에서……

85년에 지체장애인을 만나고 제가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일을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의 호소나 그들의 분노는 제가 이미 이해를 했고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에게 아주 강하고 따끔한 충고와 견책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그분들의 그 분노에 섞인 함성을 저의 백으로 삼고 더욱 열심히, 그분들이 더 저에게 힘을 보태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사장님. 모든 일에는 진정성입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오셔서, 지금 처음 대응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 오셨을 때에 일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어차피 장애인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곳에 임명을 받으셨고 또 본인이 좋으셔서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그 자리가 비장애인이어서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진정성으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마음을 나누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오셨으면 일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처음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뵙기에는. 그러면 그건 아무도 지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더운 날에 밖에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저는 고생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서 다른 차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차별을 받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을 똑같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취급을 받고 더군다나 소외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은 혜택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이 보듬어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세상에 더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배려라는 부분도 사실은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동등하게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함

께 진정으로 녹아내릴 수 있을 때 아마 동반자라고 저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이 정말 일하시고자 원하신다면 그분들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다 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진정성으로 나누는 마음을 서로가 느낄 때에 이사장님이 일하시기 쉽고…… 아까 초두에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자리를 왔지만 이보다 더 많은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약속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이사장님이 정말 안정되게 일을 하실 때 그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알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늘상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특수한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을 늘상 가다듬어 주실 수 있고 그 마음을 안고 가셔야 장애인 일자리가 생기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단에, 제가 처음부터 공단 만들어졌을 때부터 쭉 봐 왔기 때문에 아까 조종란 국장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공단이 그동안 역할 정말 못했습니다. 장애인이 와서 뭐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일례로 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이라고 해 놓고 특수분야라고 공단 하나 만들어 놓고 사각지대에 갖다 미뤄 놓고 거의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자리를 또 비장애인을 주니까 장애인들은 정말 그 부분에서 참을 수 없었던 거지 비장애인이 왔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사장님이 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일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함께 소통을 하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충고 받아들이고 자문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지금 부탁하신 그 내용을 참 명심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다음에는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특수노동자 4대직군이죠,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따르면 법제도가 시행된 지 채 4개월도 안 되어 84%가 탈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장 5곳 중에 3곳에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회사의 적용제외 강요에 의해서 민간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귀찮아서 또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민간보험회사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장 편하고 보험료 저렴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산재보험은 모든 보상에서 무과실책임이지만 민간보험은 보장 내용 중에서 휴업과 장애보상에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 결국 업무상재해 승인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요. 보장의 수준도 낮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의 당연한 생리지요. 결국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수년 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재보험에 민간보험이 진입할 수 있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재정의 효율화 관리 또 산재발생률을 낮춘다는 것인데 산재 승인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노동부도 여기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임의로 하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어렵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노력이 결국 민간보험회사의 이윤만 챙겨 주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게 뭐 대책으로 제 생각에는 당연가입이 해결책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이 제도 자체 설계가 50 대 50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니까 근로자가 50을 부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임의가입으로 가면 지금 현재 같은 그런 가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 설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의무화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홍희덕 위원 지난 2009년 7월부터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건설기계 종사자 임의가입 현황 및 실제 산재적용 사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적용 제외를 신청한 건수라든지 사업장과 노동자 숫자도 제도 시행 후 월별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또한 산재보험 탈퇴 건수, 민간보험으로 변경한 건수, 사업장 수, 노동자 수도 월별로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다음에는 질병판정과 관련해서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재해율을 보면 2009년에 2008년보다 2.1%가 증가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3000여 건 증가하고 업무상 질병은 1000여 건이 줄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증가를 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에 대해서 회의가 좀 드는데요. 업무상 질병이 준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사고가 증가한 것을 보면 작업환경, 안전문제가 개선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업무상 질병은 감소를 했을까요? 본 위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거의 남발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점점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불승인율이 35%였는데 2009년에는 47.9%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뇌경색이나 뇌출혈·뇌경색, 근골격계 질환 등의 인정률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의사라는 사실 외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의가 아닌 사실 또 작업환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3시간 정도의 회의시간 동안에 20여 건을 심사를 합니다. 건당 10분이 되지도 않지요. 본업이 따로 있는 분들이 회의시간에만 참석해서 불과 10분 동안 이 사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사전에,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배포를 하고요. 대부분이 동병상련입니다. 거의 의사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한 건 보는 데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 전문성 때문에 충분히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홍희덕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승인을 받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반대로 굉장히 좀 부실하다, 또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인정률이, 불승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경비 서는 노동자, 택시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 계통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또는 12시간을 교대 근무를 하지요. 불규칙한 근무시간 또 야간근무는 육체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지요. 이들 대부분 또 나이가 중고령층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통상 근무보다 갑자기, 보통 일상 근무보다 갑자기 업무부담이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연장근무를 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런 경비직이라든지 또 운전기사 노동자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불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2008년 7월에 뇌심혈관계 질환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종전에는 뇌출혈만 있으면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해서 재해를 입으면 무조건 100%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때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업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과로가 인정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플러스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인과관계가…… 아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책임이 노동자들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승인율이 어렵게, 그렇게 법까지 바꿔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 2010년 3월에 4대강 살리기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이라는 교재를 발간하셨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덧붙여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4대강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건설기계들에 대한 위험요인도 밝히고 있는데, 제가 4대강 공사현장을 다녀 보니까 이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굴삭기를 예를 들면 굴삭기의 버킷을 개조해서 더 많은 양을 퍼낼 수 있도록 하고 암대를 개조해서 강물 속을 더 깊이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도자가 배치된 경우도 보지 못했거든요. 모든 덤프트럭을 용량을 과적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는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일부 듣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홍희덕 위원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지금은 주로…… 그 현장 자체가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발주기관 그리고 대형건설업체의 뭐랄까 본사,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활동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협의회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제가 알기로 노동부나 안전공단이 자유롭게 공사현장에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기술지원을 요청을 해야만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은 넓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장을 발로 다니는 기술지원은 현재로서는 조금 비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은 발주기관, 대형건설업체의 본사 여기를 통해서 재해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정한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술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현장에 지금 근로자들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애초에 시작했던 수십만 개의 일자리 생기는 거는 허구로 드러났지만 그래도 기사들이나, 엄청난 건설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책사업에서 안전점검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우리 산업안전공단에서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희들도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경부·호남고속철도사업 또 아라뱃길사업 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주요 국책공사에서 대형사고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공단에 대형국책사업건설안전단도 만들고 또 관련 부처와 또 관련 공기업과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주의를……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해 주시지요.

○홍희덕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월 9일에 여주 강천보 현장에서 가물막이 붕괴된 것 아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게 새벽시간이니까 그렇지,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세운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사실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환노위에 처음 와서 노동부 산하기관들을 보니까 정말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인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이런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 이것은 정말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철면피같은 정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 임원들, 하여튼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고 또 심지어 핵심부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에는 내부기관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는 직위에까지도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나는 두 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낙하산 인사를 아예 뭡니까? '너희들 떠들어라, 나 계속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번에 또 한 것이 우리 양경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님입니다.

저는 양경자 이사장님께서 이런 제안이 왔더라도 본인이 좀 사양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한 20년 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장애인 고용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라는 거를 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연계……

○홍영표 위원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직 업무파악은 확실히 잘 못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더블카운트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중증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하면 두 사람 임금을 계산해 주는,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중증장애인 1, 2급을 고용하면 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53,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51만 원입니다.

제가요,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선은 지금 취임하신 지가, 6월 7일이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한 10여 일 근무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오늘 며칠 되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한 10여 일 근무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요, 이런 이사장 공모를 할 때 그 기관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인터뷰에 응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사실도 답변을 못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취임하신 지 거의 보름이, 2주가 다 지났지요? 2주가 지났는데도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태희 장관님 장모하고 친하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장모님……

○홍영표 위원 잘 아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전직 대표 사모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주 가깝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요즘에는 그렇게 뵙지 못합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정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자리 하나 챙겨 주고 또 장관 장모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자리 챙겨 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마 양경자 이사장님은 대선 때도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나라당의 당적도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니지요, 탈당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번에 임명되면서 탈당했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홍영표 위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물론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홍영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라도 사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아니어도 장애인으로서, 꼭 장애인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이사장 될 분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양보를 하시고, 정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어디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임태희 노동부장관하고도 가깝고 그런 사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정말 분노해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소통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올 9월 달만 해도 장애인 무슨 대회가 있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기능대회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홍영표 위원 여기에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 참여하지 않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단체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사장님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성도 없고 단지 장관하고 친하고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단에 와 이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계속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답변을 길게 해도 좋다면 길게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이정선 위원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5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를 만들면서 돌아가신 장기철 회장님의 장애인의 입장에서 99%의 자립과

1%의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장애인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저는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 당시는 장애인 복지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을 때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절규하고 또 분노하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초선의 입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때때로 법인이 필요하다, 재활센터가 필요하다 할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같이 뛰어다니니까 지체장애인 돕다가 양경자는 정신장애인 됐나 보다라고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어우러져 활동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분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질책하고 분노하고 소외감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다는 몰라도 저를 향해서, 어제도 만나고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소화시키면서 사회공헌 분위기를 증강시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 이사장님께서 85년도에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한 25년 됐나요, 한 25년 전에 그런 일 하셨는데 양경자 이사장님만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이 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많은 것 압니다.

○홍영표 위원 혼자 하신 것 아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데서 또 시대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노동부장관하고 어떻게 좀 잘 안다고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그것은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 그 자리에 임명이 되면 도대체 그런 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사장을 합니까? 그것 아니면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자리는 양경자 이사장님께서 하실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자리를 또 달라고 그러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충고 받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렸어야 할 말씀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발언에 품위를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서 몇 번 봤는데 대통령의 피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피부입니다. 대통령 정권을 '철면피'라 이렇게 칭하는 건 아무리 국회에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용어에 있어서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경자 이사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양경자 이사장님이 MB정부의 제 식구 심기다, 정실인사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가능하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임명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어땠나,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02년 7월부터 4월까지 이사장 하신 분이 그전에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이것도 비판한다면 제 식구 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직전에 이사장을 했던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장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2008년 6월 달에 이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지요?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고용개발원……

○차명진 위원 고용촉진이사로 있었지요? 그러

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의 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그 전 정부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공백 상태에서 임명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양경자 이사장님을 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양경자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구시대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구시대 인물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패의 어떤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구시대 인물을 문제 삼습니까? 후자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제 소견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사장 했던 분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공단에 있었던 이사들 돈 모아서 민주당의, 그것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아닌 서갑원·박선숙·박은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어요. 그렇지요? 그것 이유 없이 냈겠습니까? 그리고 컨설팅 용역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시대 인물이지 나이가 많거나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다고 그래서 구시대 인물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로 언어도단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

○차명진 위원 이사장님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공단 이사들 돈 모아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내지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알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우리 그런 것 안 받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다음에 양경자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이 점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경력을 보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그것이 발의되면서 변화된 게 뭡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우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가 단순한 그때그때의 수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정착이 됐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차명진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것은 저도 양경자 이사장님이 유념해 두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위 말하면 공감, 소통,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유념해 두십시오.

제가 저희 지역에서 들은 얘기예요. 한 장애인이 보훈공단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보훈공단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장애인고용공단은 엘리베이터 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또 투표장에 갔는데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계단만 있는 거지요. 완만한 경사가 없는 거지요. 이번에 투표장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장애인들과 공감을 못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양경자 이사장님께서 실제 장애인고용공단 건물도 한 번 살펴보시고 작업장도 휠체어 타고 한 번 체험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실제 장애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체험하시는 것들이 우선 당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잘 알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아까 얘기했던 더블카운트니 뭐니 이런 얘기도 중요하겠지요. 허나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과 같이 서로 공감하고 같이 고통

을 겪고 하는 그런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 이것은 어떤 전문성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잘 알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예, 갖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체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우선 소통기구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장애인의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건전한 정말 절실한, 정책에 반영할 일이지만 제가 제도권 안보다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정말 현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의원님들을 괴롭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저희도 불러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심사할 때 장애인과 함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부탁하는 것은 휠체어 같은 것도 타 보셔야 되지만 정신지체장애자들의 경우에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저희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차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성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산업안전공단 노민기 이사장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강성천 위원 오랜만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강성천 위원 산업재해자가 올해 4월 말 현재 3만 1881명을 기록했고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언론에서는 '산업재해율이 20년 전 수준인 0.72%로 복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산재 증가가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도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 재해를 줄이지 않고는 0.7% 밑으로 재해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작년에 공단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시행한 일이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작년 하반기에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실적을 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업 재해는 증가했지만 공단에서 지원한 서비스 사업장의 재해율은 2008년 0.71%에서 2009년 0.66%로 0.05%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희들이 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올해 산재 다발 4대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플러스사업은 산재자가 2009년 4월 대비 157명이 감소해서 15%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맞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처럼 공단의 지원과 산재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산재예방사업을 더 강화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단에 금년 초에 비로소 대한민국 처음으로 서비스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산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산재예방 캠페인에 목표 대비 58% 사업장만 참여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공단의 노력이 부족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결과적으로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재해 예방을 해 본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는 단체를 모집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찾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올해 5월 말 현재 15만 5100개의 사업장이 산재예방사업에 참여해서 목표 대비 2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이 서비스업 산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안전문화캠페인 참여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70만 개 사업장은 연간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제 생각에는 연간 70만 개 목표는 연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강성천 위원 올해 4월 기준으로 서비스업 재해자 통계에서 영세한 음식 및 숙박업의 재해율이 21%,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9년 말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신설되었음에도 올해 4월 기준 음식 및 숙박업의 재해율이 작년과 같은 21%인 것은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업재해예방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길게 잡아도 6개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송구스럽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좀 기다리면 될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열심히 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종업원 안전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의무 자체도 없고 5인에서 10인까지는 사업장의 의무는 있지만 안전의식이 좀 낮다 그럴까요? 또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럴까, 아무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천 위원 서비스업 산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공단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산재 감소가 국가적 당면 과제임을 명심하고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유념하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인력공단 이사장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강성천 위원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기능인이 되려고 하는 젊은 인재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가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이 86%가 되는 점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공단에서 명장과 우수 기능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지금 우리 공단에서 기능 장려사업으로 하는 게 명장, 우수기능인 그리고 또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금·은·동을 딴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하고 해 가지고 한 3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액수로는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청와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명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해마다 계속적으로 연금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또 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은·동 메달을 딴 입상자들이 올림픽에서 금·은·동을 딴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의 입상자들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입상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2년 되면 없어지는 병역특례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한테 똑같이, 올림픽에 입상한 사람같이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 때문에 기능 장려, 기능경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전향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명장 기능인 중에서 최고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명장들이 그 부분의 최고의 기술자들인데 사실 벤처기업을 육성하듯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명장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 노동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면서 또 많은 제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명장의 기능을 이제 전수하려고 해도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얘기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기능공 출신이고 74년도 기사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개인한테 없기 때문에 기능을 인정해 줘 가지고 정부가 그런 벤처 지원을 하는 듯이 지원을 해 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산을 대폭 편성해 가지고 이 기능인 양성을 필요로 하는 데 추진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노동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꼭 해 주시고요.

명장에 대한 포장이 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 인원에 비해서 아주 낮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명장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우가 제대로 있어야 우리 산업이 육성한다고 보아 이사장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약속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골고루 질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이사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신영수 위원 직영 병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병동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안산하고 인천에 두 군데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지요.

○신영수 위원 병상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병상이 인천에는 58병상, 안산에는 30병상 해서 88병상입니다.

○신영수 위원 예, 그런데 이용률은 몇 %쯤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이용률이요?

○신영수 위원 이용률, 외국인 이용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외국인 이용률이 한 12.5%, 상당히 낮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좀 낮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 근거지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병동으로 별도로 해 버리니까 이게 자기들이 차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너무 낮은데, 그러면 나머지 유휴 병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외부 환자 분하고 또 우리 내국인 환자, 그다음에 산재근로

자 이런 분들하고……

○신영수 위원 취지에 좀 반하는 거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신영수 위원 그 병상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취지에는 안 맞죠.

○신영수 위원 그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래서 우선 설립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거든요. 안산에도 있고 또 여기 의정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그 병원 PR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병원들이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해 주는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를 자주 갖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내가 이 첫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신영수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몽골에서 귀화한 분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가 많이 좀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시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래서 국내 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고 국제 기능대회에서도 입상한 수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좀 알선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공고, 지금 기능을 연마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학생이 아니고 저는 수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학생일 때 거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제가 그러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신영수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로 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되는 자격증 가지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수상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제가 건설 부문의 타일 금메달 딴 사람도 GS건설에 한 4개월 전에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국제대회는 거의 100% 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여기의 입상자들을 우리가 다 지금 취업시키기 위해서 인력공단 각 지역 사무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사무소에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 안의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 취업시켜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의 기관장이 몇 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업무평가에 이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 실적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수상자들이 해당되는 그 분야에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산업안전공단 이사장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2000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30%가 조금 못 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2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건설업이 우리나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또 건설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은 28%가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연간 1조 88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손실까지 따지면 지금 5조 4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건설업에서 산업 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옥외작업의 특성상 위험요소도 많고 또 근로자들도 다른 제조업과는 달라 가지고 일용직 등 빈번한 이동이라 그럴까요? 이런 하드웨어적 측면과 근로자의 속성 이런 것들이 겹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설업 재해자 중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입사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일용근로자가 88%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설업에 들어와서 6개월 내에 88%, 그러니까 전체 산재 중에 88%가 이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건설근로자 중에서 입사 초기에 재해가 많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 숙련도가 좀 떨어지고 사전에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리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혜택을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건설회사·현장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서 이 비율을 좀 떨어뜨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투입 전 또는 투입 초기 단계에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10만 명 시켜서 큰 효과를 봤는데 금년·내년 이것을 계속하고자 지금 예산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사업장별, 그러니까 규모별로 재해 발생률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발생률의 한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안전사고입니다. 넘어지고 끼이고 추락하는 이런 겁니다. 여기 직접 방문 지원이 돼 있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직접 방문뿐만 아니고 민간 대행기관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게 한 두 배쯤 되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직접 방문이 3만 5000개고, 민간 대행이 7만개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민간 대행기관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폐해는 뭔가 알고 계시겠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폐해라기보다는 좀 부실이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신영수 위원 예,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신영수 위원 그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희 공단 직원이 가면 아무래도 공공성이라든가 전문성·꼼꼼함 이런 것 등등이 훨씬 더 좋으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력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후순위로 밀려져 있고 일단은 좀 효율화를 기한다라는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민간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예산으로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하여간 통제방안을 잘 모색 좀 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민간기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민간기관의 평가를 잘하는 방안을……

○신영수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좀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한 가지 아까 이정선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클린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재 제조업 사업장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다가 좀 늘릴 계획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아까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위험한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경우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클린사업장의 그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시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것을 조금씩 키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지원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좀 요청하십시오. 국회에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장애인고용공단 잠깐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0년에 비해서 67%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반 평균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반이 육십몇%인데 장애인은 사십몇%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일반 국민이 3.2%인데 장애인은 8.3%입니다. 고용률도 일반인이 한 60% 되는데 37%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부분은 3%인데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2%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복안이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제 말에 오해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장애인 고용촉진은 장애인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예컨대 우리 공단의 클라이언트, 고객은 첫째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적 차원에서 그들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또는 그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표준사업장으로 다각……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많고 또 사회적기업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정말 발 빠르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직업훈련과정을 좀 엄격하게 하고 그 과정을 마친 사람한테 인증제를 줘서 일반 기업에서는 그 인증을 받은 사람을 안심하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인증제도 부분에서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제도를 한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맘 놓고 쓰도록 보장할 수 있고, 다만 이 장애인들의 장애형태나 여러 가지 학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적용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게 된다면 그걸 또 더 많이 확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을 하다가 애매한 건 거기로 넘기지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문적인……

○손범규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방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왜 말이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사소한 것 가지고 또 말싸움 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아닙니다.

○손범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희들은 직업병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역학조사판정위원회입니다.

○손범규 위원 역학조사판정위원회예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역학조사판정위원회입니다.

○손범규 위원 역학조사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률이 몇 %나 됩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저희들은 직업병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 직업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관계 의학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 조사가 정확히 됐는가를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의 질병의 원인이 확실하게 그 사업장의 화학물질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복지공단에서 의뢰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긴가민가, 과학적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이 나서…… 아니, 그런 견해가 이제 모아지면 그걸 그대로 복지공단에 보내면 복지공단의 직업병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노사단체 대표 등등이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손범규 위원 그러면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 모르겠다, 저쪽에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승인 판정합니까, 승인 판정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우리는 역학조사 결과가 오면 거기서 의사들이 예컨대 화학적 요인이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걸 의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들어가서, 질병판정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의학적인……

○손범규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그것이 산업재해다, 이렇게 이제 최종 판정을 하는 것이지요.

○손범규 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매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겁니다.

뒤에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근로복지공단기획이사 이우헌 기획이사입니다.

○손범규 위원 기획이사, 하고 싶은 말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로복지공단기획이사 이우헌 모든 것을 의학적 판단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성순 발언대에 나와서 직·성명 밝히고 얘기하세요.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근로복지공단기획이사 이우헌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이 주가 되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접근방식이 상당히 관료적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도 보면, 두 공단의 보고서도 보면

국민의 생명이나 관계된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매년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간파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복지를 향상하겠다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이 업무현황에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사장 두 분 다 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가다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백혈병, 열아홉 살, 스무 살에 입사해 가지고 스물세 살, 스물네 살에 백혈병 걸려서 줄줄이 죽어 나가는데 산업재해로 판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의 혜택과 산업안전공단의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그것이 정권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되어 가지고 정권에 부담까지 안겨줄 때에는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뭐 좀 고민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손범규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범규 위원 그 고민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민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우리가 그것 판정하는데…… 우리라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만 그것 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손범규 위원 얘기해 봐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걸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수많은, 연간 9만 건이 해당됩니다, 그게. 그걸 어떻게 감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원칙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범규 위원 누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위원장 김성순 이사장!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손범규 위원 누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러면 저희 공단이 원칙적으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왜 처음부터 그런 접근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냐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바이어스(bias)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공단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심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손범규 위원 업무현황 보고서에 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현황 보고서에? 두 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이건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입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만약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그것만 뽑아서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해서 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건 우리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범규 위원 일상적인 업무만 보고하면 됩니까?

일상적인 업무만 여기 보고받는 데예요, 국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합시다.

○손범규 위원 마이크 잠깐만 켜 주세요.

○위원장 김성순 그래요. 켜세요.

……

○손범규 위원 지금 두 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계속해서, 어저께 노동부장관에게도 내가 얘기를 계속, 지금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의원회관에 왔기에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소통이 되고 있으면 이사장님들은 왜 이런 질문 나올 것이라는 것 전혀 보고도 받은 일도 없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도 입증책임의 문

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어저께 노동부장관도 뭐라고 그랬냐면 입증책임의 부담이 누구에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치명적으로 승패가 엇갈리는 문제기 때문에 연구와 노력을 해서 근로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아까 저도 답변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범규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질문이. 그런데 방금 전에 의학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도 의학적인 판단…… 거기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의학적인 판단에만 의존합니까? 지금 제도가 그걸 전혀, 의혹에 기반한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지금 어떻게 하면 잘해 주겠냐라는 법 때문에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겼고 보험제도도 생겼고 두 기관이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의사들한테만 핑계 다 대면, 그럴 거면 공단 직원이 뭐가 필요하고 의사들만 다 채우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 의사, 자꾸 역학조사, 의사의 전문지식에만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까? 그런 접근 방법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 판단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 해당 분야의 전문의 그다음 변호사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이사가 나와서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범규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직원들은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직원들은 뭘 해요? 판단하는 위원회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법제도의 실효성을 가져 가지고 근로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의회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종전에는 우리 공단 직원이 단독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신뢰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노사가 추천하는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진료판정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순 자, 됐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는 건데 이것마저 믿을 수 없고 공단이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직접 판단하라면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손범규 위원 누가 직접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손범규 위원 누가 직접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지금 공단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아, 그런데 이사장 답변 태도가 아주 안 좋은데,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 지금 묻는 자리인데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지금 첫 번째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퇴장시키겠어요. 그런 분한테는……

○손범규 위원 퇴장을 시키면 안 되지요. 퇴장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계속해야……

○위원장 김성순 다음부터는 퇴장시키겠어요. 나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손범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하고 본 위원이 좀 참겠습니다. 그만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뒤에 부장 있지요? 우리 의원회관에 찾아왔던 부장 있지요? 이사장님께 잘 보고를 하세요.

뭐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왜 입증 책임의 분담 문제가 얘기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잘 보좌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입증 책임의 분담, 입증 책임의 완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좌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길 바랍니다. 이사장님, 되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다시 얘기하는데요. 질의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 가서 자세히 체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니까 물을 때에 엉뚱하고 답답하고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납득시켜야지 거기에다가 감정을 대입시키는 것 같은 그런 답변 태도는, 아주 그것은 안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것은 놀랄 일인데……

○손범규 위원 맨 처음에 산업안전공단에서 답할 때 실실 웃으면서 웃기게 답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염병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위원장 김성순 자, 그만 하고요.

다음 준비 되었습니까,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영표 위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홍영표 위원 지금 산업인력공단의 사업 중에서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이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해외 취업연수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사실 작년에 해외 취업연수 목표를 한 3800명으로 잡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인력을 취업시키고 외국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를 1500명으로 낮추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래 가지고 작년에 1571명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2700명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구인처라든지 또 교육기관 선정을 해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취업을 지금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해외 취업연수 모집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취업률도 지금 2007년에는 55%에서 2009년에 26%로 이렇게 되었고, 하락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중도 탈락률도 이렇게 15%에서 27%로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렇게 중도 탈락률도 높고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취업연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해외 취업 관련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1571명, 올해 2700명을 그래도 해외에 취업을 시킨다면 지금 글로벌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국내 취업을 제치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국격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닦아 가지고 국내로 회귀했을 때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저조하더라도 올해 2700명 목표는 연말에 계속 우리 홍 위원님이 여기에 계실 거니까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별로 해외 취업연수 보면 일본이 5574명, 중국이 4456명, 전체의 73%를 차지하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좀 다른 나라로 다변화할 수는 없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그래서 지금 그 4개국 이외에 홍콩, 싱가포르 또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원전기술 계약을 우리가 체결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국제인력본부장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나가 가지고 해외 구인처 사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변화시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지금은 서비스 분야가 사실 제일 많고요. 스튜디어스나 간호사나 또 미용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IT 쪽 또 용접 이런 제조업 쪽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홍영표 위원 용접도 그게 취업연수에 해당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데는……

○홍영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지요, 용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용접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어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좀 분야도 더 많이 발굴을 하시고 나라도 다변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해외 취업의 모든 창구는 산업인력공단으로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KOTRA나 KOICA 또 외통부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던 게 이제는 인력공단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영표 위원 인력공단으로 왔으니까 더 성과를 많이 내야 되고 더 잘하셔야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이 올해 4월 28일 날 마무리되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통합과정에서 이사장께서 노력과 상호 두 조직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들의 협조로 잘 이루어낸 데 대해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다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조직 통합 후에 혼란 없이 호봉과 직급의 단일화를 이룬 것도 잘했습니다. 상호 조직 간의 이해와 실질적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단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가장 중요한 게 그 점인데,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두 조직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월 28일부터 7월 달까지 일체감함양교육을 직급별로 죽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간담회라든지 또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역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현재 양대 노총 간에 이의 없이, 지난번 제가 갔을 때같이 잘하고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양 노조하고 저희 사 측하고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성천 위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통합 이후 병원모델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실시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대표적 문제가 단순질병 중심의 환자 진료, 낮은 인지도, 수익 확보의 어려움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앞날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과 우리가 똑같이 경쟁해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 나름대로의 특화된 상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재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활전문화를 통해서 그런 급성기 치료라든지 아급성기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라든지 이렇게 특화

해서 저희 병원을 육성할까 합니다.

○강성천 위원 2009년 환자 현황을 보면 국가재정 이외의 환자가 1만 7525명으로 전체 환자의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사실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게 전체 산재환자 직영 병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산재환자 점유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산재환자들이 전부 다 일반병원에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앞으로 산재환자 전문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산재 근로자 하면 반드시 우리 공단의 직영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을 하고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면 재정이 자립이 되겠습니까? 재정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3년 내에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지금 3개년 계획을 짜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찬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얘기인데요.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일원화됩니다.

○강성천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 아까도 이찬열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382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전환 인력 선발 시 그 방법과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단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걱정하던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러니까 이관되는 인력 382명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확정이 되었지만 각 직급별로 누가 갈 것이냐, 그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노사정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그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체계가 틀리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틀립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부과체계를 통일해서 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신규업무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마무리하시지요.

○강성천 위원 향후 인력운용방안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질의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게 560명이 새롭게, 고용정보관리제도하에서 필요한 인력이 560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60명은 순증이 되어야 될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선진화방안 때문에 순증이, 인력 증원이 좀 어려운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력 중에서 382명이 또 건보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쇄효과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82명 중에서 예컨대 100명은 남겨두고 282명만 넘기면 100명의 증원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적합한 조합을 지금 찾고 있지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은 382명을 전원 다 달라고 그러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순증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공단은 560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전부 증원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이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천 위원 현재 그 상황에서 그 인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560명 가지고요?

○강성천 위원 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런데 560명을 확보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 내에 560명을 증원 안 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560명을 쓰라면 우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 방법은 건보공단으로 인력을 덜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증원을 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강성천 위원 자체 인력으로도 지금 현재 382명을 넘겨주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 전원은, 다 안

넘긴다고 할 수는 없지요. 건보공단 입장이 또 있고 넘어가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 382명 중에서 일부는 좀 잔류시켜 달라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증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저희들 희망이지요.

○강성천 위원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시범 운영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민편의 증진, 비용 절감, 사회보험서비스 확충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기 위한 공단의 구체적 준비 상황이 무엇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국민편의 증진, 비용 절감, 사회보험서비스 확충이라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그게 바로 통합징수의 목적입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준비 상황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현재 준비는 전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체제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완벽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통해 대국민 편의 제공과 사회보험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인데요,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글로벌 취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신영수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지난번에 국토해양위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수산, 해양, 항공, 이런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사항 좀 해 주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실무를 보내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해외 취업하는 것 있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예.

○신영수 위원 그 사항도 좀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한국고용정보원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질문 한 번도 안 가면 심심하시지요?

(웃음소리)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저는 좀 자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 번 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그만큼 국가정책에서 노동보다는 고용 쪽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문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고용정보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취업 포털을 봤습니다. 취업 포털이 인크루트도 있고 잡코리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워크넷입니다.

○신영수 위원 워크넷인데 이용률이 지금 민간

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끼리,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20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90%가 취업 사이트 보고 직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사이트보다 떨어지는 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초반에, 98년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IMF 위기 때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널리 해 주십시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서 보면 잡영이라는 것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예.

○신영수 위원 그것도 금년도에 개설됐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포털로 해 가지고 취합할 수 있는 잡로봇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10월부터입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11월에 완성이 됩니다.

○신영수 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잡로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인수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제가 성남시 수정구에 있습니다. 거기 폴리텍대학이 있지요. 그래서 행사 있으면 매번 갑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잠깐 나왔지만 지역주민 기능을 개발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많이 앞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올리는 것은 임금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한 자료 보면 여기는 2200만 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훈련시켜 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급여를 많이 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예.

○신영수 위원 다기능기술자 보면 지금 연봉 2000만 원 미만이 46.4%입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이하는 8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 양성 1년 과정 보면 2000만 원 미만이 62%, 그다음에 2500만 원 미만이 9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이 한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취업에 대해서 많은 역할도 했지만 이제는 취업의 질을 개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우리나라 직업 기술의 대표 대학을 지향하면서 현재 저희가 이룬 성과로는 사실 너무 배고픕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내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융합기술인재 확충시스템도 만들고 학과도 개편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삶의 질을 높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명된 절차는 위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저는 응하는 입장에서 제 부분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서 면접 결과에 의해서 제가 된 걸로 알고 그리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신영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신영수 위원 그동안 이사장님이 아홉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이 몇 분이고 비장애인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공단에 장애인이 19.……

○신영수 위원 그게 아니고 이사장님,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장애인이 다섯 분이었고 장애인 아닌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 상황 봐서 이사장에 취임하는데, 절차도 적법했고 아까 여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에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입법도 하시고 활동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도 봤습니다. 보니까 타당하지 않은 얘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이사장님에 대해서 비토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 전의 이사장들 세 분이 장애인이었고 또 그 위에가 비장애인이었고 이렇게 해서…… 초대는 비장애인, 2대는 장애인 이렇게 섞어서 오다가 연속해서 3대를 장애인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장애인이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다, 그 표현 자체도 제 경우 아닌 경우에도 많이 들었지만 구태여 제가……

○신영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합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과거의 일을 자꾸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간 한 5~6년간에도 계속 장애와 관련된 일을 했고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위원장 김성순 이사장님, 그냥 이제 마무리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모든 염려를 제가 다 깊이 인식을 하고 조심해서 그리고 열심히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절차도 적법하고 과거 전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마는 보다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좀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에 대한……

○강성천 위원 위원장님! 한기대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왔다가……

○위원장 김성순 하나 하시겠다고요?

○강성천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한기대에 제가 기회 줍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 3대 전략을 이행하는 데 5년 동안 모두 107조 4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는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녹색산업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완화,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며 성장세가 빠르고 기존 제조업에 비해 3~10배쯤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차세대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이동 발생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도 이에 따른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한기대는 지난해 9월에 녹색성장 산업 분야 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교육사업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정부와 협의해 수립하셨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내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사업,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게 내용이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강성천 위원 이번에 한기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녹색성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텍 등 직업훈련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도 준비 중이지요?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입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태양광에너지 및 2차전지 분야이고 한국폴리텍대학 등 직업훈련 교원을 대

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강성천 위원 특히 현재 태양광에너지 관련 분야는 아직 미지의 분야로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기관이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세계적 추세인 녹색산업 분야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녹색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될 때 적절한 인력이 공급이 된다면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한기대에서 배출된 교원들이 직업훈련기관의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교육을 담당해서 다시 이들을 길러낸 인재들이 국내외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 과정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한기대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저희가 교과 과정은 산학 협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사업, 녹색성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욱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녹색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지키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도 초기 단계이니 만큼 우리가 빨리 진입한다면 더욱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청정기술과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역발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기대가 녹색성장산업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발전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사장직무대리의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획처장 조현찬 맞는 말씀이고요. 교육으로 학생을 길러 낸다는 것은 미리 앞서서 길러 내야 됩니다. 산업이 열리기 전에 학생을 길러 내야지 비로소 녹색산업이 열렸을 때 인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는 아주 상당히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히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어갔지만, 나중에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7개 기관 이름을 몇 번이나 읽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개 기관만 아주 잘해도 우리나라 복지가 달라질 겁니다. 비생산적 시민을 생산적 시민으로 만들고,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정말 국회나 정부나 모두 나서서 이러한 기관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데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적극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신음소리, 또 말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얼토당토않은 그런 불평불만, 그런 것 다 경청하십시오. 이들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가는 신음소리를 내고 또 호소하고 하는 그분들은 여기 국회의원들보다 전부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보다 말도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7개 기관만 잘해도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분이 있는데 이정선 위원과

홍희덕 위원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여기도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렇습니까? 강성천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하고, 그래서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또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각 기관장,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밖에 복도에서 기관장님들이 답변을 잘하도록 애쓰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속기하시는 우리 국회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성천	김성순	손범규	신영수
이미경	이범관	이정선	이찬열
주호영	차명진	홍영표	홍희덕

○청가 위원(1인)

조해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원창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노동부

정책기획관	조병기
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원배
감사	서송주
기획이사	이우헌
재정복지이사	이은애
산재보험급여이사	정구헌
산재의료이사	구본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유재섭
감사	송승호
기획운영이사	이윤호
능력개발이사	홍석운
자격관리이사	김종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민기
감사	고성범
기획이사	김동섭
기술이사	홍용수
교육홍보이사	최대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양경자
기획관리이사	이보간
고용촉진이사	손영호
고용지원국장	조종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인수
정보화사업본부장	조인호
연구개발본부장	박명수
기획조정실장	이수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허병기
운영국장	김정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처장	조현찬
행정처장	김의경